

'1년 유기실격' 강정호 내년 KBO리그 복귀는 '글썸'

구단 자체 징계 가능성 남아

강정호(33)는 내년 KBO리그 무대에 설 수 있을까. 예상보다 '가벼운' 징계를 받았지만, 그라운드에서 서기 위한 관문은 아직 남아 있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지난 24일 상벌위원회를 열고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를 낸 강정호에 대해 야구규약 제151조 품위손상행위에 의거, 임의탈퇴 복귀 후 KBO리그 선수 등록 시점부터 1년 간 유기실격 및 봉사활동 300시간의 제재를 부과했다.

강정호는 미국 메이저리그 피츠버그 파이어리츠 소속이던 2016년 12월 국내에서 음주운전 사고를 냈다. 조사 과정에서 2009년과 2011년 두 차례의 음주운전 이력까지 드러났다.

'음주운전 삼진아웃제'에 적용된 강정호는 법원에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치현 키움 단장은 26일 "강정호 측에서 임의탈퇴 요청이 아직 들어오지 않았다. 선수의 요청이 있다면 구단에서도 내부 검토를 시작할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최근 KBO리그 구단들은 음주운전 발생시 KBO 상벌위원회보다 더 강력한 자체 징계를 내리고 있다.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고, 선수들의 일탈 행위를 막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앞서 삼성 라이온즈는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최충연에게 100경기 출장 정지를 시켰다. SK 와이번스는 음주운전 사고 불의를 일으킨 강승호를 임의탈퇴 처리했다.

상벌위원회에서 1년의 '술방망이' 처벌을 받은 강정호도 구단 징계에서는 더 무거운 징계를 받을 수 있다.

김 단장은 "강정호와 계약하게 되면 법률 상담을 받아 구단 자체 징계는 검토할 부분"이라

고 설명했다.

키움으로서는 강정호와 계약을 하지 않거나, 징계가 끝난 1년 뒤 강정호를 타 구단과 트레이드 하는 선택지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김 단장은 "트레이드까지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차기운 여론도 강정호의 복귀를 막고 있는 '벽'이다. 리그 최고의 스타였던 강정호의 반복적인 음주운전에 팬들은 깊은 실망감을 느꼈다. 구단으로서는 싸늘한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다.

강정호는 소속사를 통해 "죽는 날까지 후회하고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며 "야구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뼈저리게 느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자격이 없는 걸 알지만, 야구를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해보고 싶다"고 복귀 갈망을 전했다. 팬들의 반응은 여전히 냉담하

'국립체육박물관 성공적 건립·은퇴 선수 일자리 지원'

국립체육진흥공단, 국가대표선수협과 업무협약 체결

국립체육진흥공단이 "26일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파크텔에서 사단법인 대한민국국가대표선수협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국립체육박물관의 성공적 개관과 대한민국 스포츠 진흥 및 발전을 위하여 개최된 이번 협약식은 조재기 국립체육진흥공단 이사장, 박노준 국가대표선수협회장 및 양 기관 임직원 20여명이 참석했다.

국립체육진흥공단은 "이번 협약을 통해 ▲체육유물 확보를 위한 홍보 캠페인 공동 진행 ▲



은퇴선수 활용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가치 창출 ▲전시·교육 콘텐츠 개발 관련 협력 및 지원 등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재기 이사장은 "60개 종목 4만여 전·현직 국가대표 선수들이 함께하는 대한민국선수협과의 업무협약으로 국립체육박물관의 성공적 개관에 큰 힘이 되리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립체육진흥공단이 개관 준비 중인 국립체육박물관은 대한민국 체육과 관련된 다양한 전시·교육·문화 행사 및 스포츠과학과 스포츠산업까지 아우르는 복합 체육문화공간으로 2022년 하반기 서울시 송파구 올림픽공원 내 개관 예정이다.

전주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재개장'

27일부터... 코로나19 예방 위해 지난 2월부터 휴장

전주국민체육센터 수영장이 27일 재개장한다.

26일 전북체육회(회장 정강선)에 따르면 도체육회가 수탁 운영하는 국민체육센터 수영장이 27일 다시 문을 연다고 밝혔다.

이 수영장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지난 2월부터 휴장했다.

수영장은 재개장되지만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은만큼 이용은 제한적이다.

입장정원과 이용시간 등이 제한되고 회원 강습프로그램은 운영하지 않는다. 자유수영만 가능하다. 또 낮 12시부터 1시간 동안 자체 방역을 위해 브레이크 타임을

실시한다.

이용객들은 체온측정과 함께 입장 시 명부를 작성해야 하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출입을 할 수 없다.

아울러 체력단련실과 체온조절실(사우나)은 이용할 수 없으며 2m 거리두기를 유지할 수 있게 할 예정이다.

유인탁 사무처장은 "전주국민체육센터 수영장이 제한적으로 운영 돼 이용객들의 불편이 예상되지만 양해해달라"며 "이용객들은 마스크 착용 등 준수사항을 잘 지켜 주고, 방역(소독) 또한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소셜빅데이터 내 K리그 언급량 62.1% 증가

전년대비... SNS 중 인스타그램 언급량 30% 증가세

단일 선수로 호날두 출전 불발 '유벤투스 친선경기'로 꼽아
가장 많이 거론된 구단은 '수원 삼성' 8만5545건에 달해

2019년 소셜빅데이터 내 K리그 언급량은 2018년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프로축구는 2019년 한 해 동안 K리그가 언급된 소셜빅데이터 분석 자료를 26일 공개했다. 분석은 한국프로스포츠협회 소비자 트렌드 전문 조사 기관인 한국인사이트연구소에 의뢰해 진행됐다.

지난해 언론, 블로그, 포털, SNS, 커뮤니티 등 다양한 채널에서 주요 키워드가 거론된 76만82건 중 중복·불필요한 데이터를 제외한 13만 263건이 주요 분석 대상 데이터로 분류됐다. 이는 2018년 8만341건보다 62.1% 늘어난 수치다. 특히 인스타그램에서의 언급량은 300% 이상의 증가세를 보였다.

월별 언급량은 순위 싸움이 본격화 된 7월부터 급증했다. 전북 현대와 울산 현대의 우승 경쟁이 최고조에 달했던 11월에는 전년 대비 2.6배 늘어난 1만4573건을 기록했다.

강점이 드러나는 언급 중 긍정어의 비중은 2018년 1만7438건에서 소폭 오른 2만3136건으로 집계됐다. 부정어 역시 9330건에서 1만569건으로 늘었다.

지난해 가장 K리그가 많이 언급된 단일 선수는 유벤투스 친선경기다. 기대를 한 몸에 받던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의 출전 불발과 맞물려 큰 화제를 모았다.

5월29일부터 9월30일까지 무의미한 비방과 욕설을 제외한 유벤투스 친선전 관련 K리그 언급은 총 14226건으로 드러났다.

이밖에도 팬들은 0-4에서 5-4가 된 강원FC와 포항스틸러스(6월23일~30일 4216건), 아시아 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시작(3월1일~31일 2209건) DGB대구은행파크 개장(3월1일~31일 1148건) 등에 관심을 보였다.

가장 많이 거론된 구단은 수원 삼성으로 언급량은 8만5545건이다. 특히 각종 커뮤니티에서 수원에 대해 논하는 일이 많았다.

선수별로는 대구FC의 세징야가 6570건으로 K리그 전체 선수 중 1위를 차지했다. 성적과 흥행을 모두 잡은 대구는 긍정 감성이 비율에서도 63.8%로 12개 구단 중 가장 높았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프로축구와 관련해 긍정적인 감정을 나타내는 글은 대부분 특정 선수에 대한 관심이나 지역 연고 구단에 대한 애정으로 작성한다"면서 "단순히 경기력이 좋은 것을 떠나 팬서비스가 좋거나 팀내 분위기를 주도하는 선수에게 관심이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뉴미디어 채널을 통한 다양한 인증 이벤트와 신규팬을 위한 타깃마케팅으로 선수 중심 팬서비스를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방향성을 제시했다.

감염병 의심되면 '1339'로

코로나19 이겨낼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행동수칙

자료: 질병관리본부

건강한 시민이
할 수 있는
감염병 예방법
두 가지



손씻기



마스크착용

일반 시민이라면?

1.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
2. 기침할 때 입과 코 가리기
3. 씻지 않은 손으로 눈과 코, 입 만지지 않기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마스크 착용
5. 사람 많은 곳 방문 자제
6.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 피하기

증상이 있으시다면?

1. 등교, 출근하지 마시고 외출 자제
2. 집에서 충분한 휴식과 함께 3~4일 경과 관찰
3. 38도 이상 고열이 지속되거나 증상이 심해지면 1339로 문의, 또는 선별진료소 우선 방문
4. 의료기관 방문할 땐 자기 차량 이용하고 마스크 착용
5. 진료 의료진에게 호흡기 증상자와 접촉 여부 알림

전주매일 캠페인